

‘타악의 매력’ 가슴을 두드리다

타악양상블 그룹 ‘메타’ 서구 강산아트홀서 나눔 음악회 공명관 두드리는 마림바 소리 이채 집시음악 ‘지코이네르바이젠’ 신비 ‘타자기’ 바쁜 현대인의 삶 연상도



연주자들이 공연의 막을 여는 ‘스투버낙’을 연주하고 있다.

두드릴줄 안다면 타악기는 누구나 연주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심장까지 울림을 전달하는 ‘퍼커션’은 아무나 될 수 없다.

타악양상블 메타(META)가 지난 24일 서구 강산아트홀에서 선보인 ‘그 여름, 울림’ 공연은 타악의 향연 그 자체였다. 거대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무대도 좋지만, 조촐한 실내공연의 정수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아티스트와 관객석과의 거리는 두세 걸음 남짓. 공연자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였다.

이번 공연은 비영리기관 강산아트프렌즈가 작년에 설립한 아트홀에서 지역나눔 음악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연의 막은 남미 국가 니카라과의 흥취를 담은 마크 포드의 ‘스투버낙’이 열었다. 대형 마림바 앞에서 세 명의 연주자가 여섯 개의 말렛(막대)을 쥐고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은 일사분란했다. 트리오 연주자의 여섯 개 손이 숨겨진 ‘여섯 번째 손가락’을 펼치고 건반을 두드리는 모습은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듯 했다.

특히 연주자들이 말렛을 쥐고 바닥에 앉은 공명관을 두드릴 때는 날카로운 멜로디도 들을 수 있었다. 깊고 따뜻한 음색을 주로 보여주는 마림바의 또 다른 이채로운 매력이 공연장에 울려 퍼졌다.

르로이 앤더슨이 1950년 작곡한 ‘타자기’는 문재작 그 자체. 연주와는 먼 용도인 타자기를 두드리며 리듬감 있게 초인종을 울리는 모습은 쫓기는 일상을 사는 직장인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피날레에서 종이를 찢는 퍼포먼스는 일종의 해방감을 느끼게 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오버 더 레인보우(해롤드 알렌)’ 편곡 버전과 ‘마림바 영가 파트’도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오미정의 솔로 무대도 이어졌다. 이집트 무희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집시음악 ‘지코이네르바이젠’은 스페인의 바이올리니스트 파블로 데 사라사테가 만든 작품인데 타악 버전으로 개작해 무대에서 선보인 것. 집시가 이집트에서 건너온 것으로 오해한 데서 붙여진 이름인 ‘집시음악’인 만큼, 연주자는 고대 국가 속 무희와 집시한 듯한 신들린 타악 연주를 보여줬다.

홍지수가 연주하는 ‘리틀 제츠 왈츠’는 잔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정원의 숲속에 초대된 듯한 재즈의 아늑함과 왈츠의 몽상을 느끼게 하는 선율이 돋보이는 곡이었다. ‘두드린다’라는 강렬한 행위가 가장 여러 셈여림을 자아내는 모습은 타악 공연의 반전미를 느끼게 했다.

연주자 전원이 무대에 올라 연주하는 ‘나무 조

각을 위한 음악(스티브 라이히 작)’은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미니멀리즘에 경도된 작곡가가 극단적인 반복과 변화를 통해 철학적 메시지를 주는 곡으로, 박자에 맞춰 스크린에 떠오르는 표지들은 리듬게임을 연상케 했다. 이 작품은 타악에 처음 입문하는 관객이라도 영상을 보며 쉽게 장단을 맞출 수 있어 보였다. “감정을 배제하는 직선적 음악”이라는 연주자의 설명이 실제 울림과 맞아떨어졌다.

어느 새 계절은 성큼 가을 어귀에 와 있다. 이번 타악양상블공연 ‘그 여름, 울림’은 타악으로 뜨거웠던 여름을 기억하고, 다가올 계절에 환호를 보내는 시간이었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문학’으로 만나는 아시아의 도시

ACC, 다음달 19일까지 강연·문학기행 9개 프로그램 진행

도시를 읽는 방법은 다양하다. 미술로, 건축으로, 음악으로 도시의 역사를 가늠할 수 있다. 도시에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특유의 정체성과 문화가 있다. 오늘의 도시는 모든 문화들의 총합이자 보고이다

문학작품으로 아시아 도시의 가치를 발견하는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아시아문화교류행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채희운)와 함께 ‘만나는 아시아 문학’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9월 19일까지 ACC, 광주, 완주, 서울에서 펼쳐진다. 주제는 ‘문학작품으로 떠나는 아시아 도시 기행’.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9월 16일 열리는 아시아문화포럼 사전 행사로 진행되며 아시아 문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30일은 전북 완주 ‘감나무 책방’에서 김남일 소설가와 함께한다. 김 작가는 ‘서울 이야기’를 통해 우리 근대 문학의 영광과 좌절 등 아시아 근대 문학 흔적을 살펴본다.

9월 5일 이진 전 광주여대 교수가 ACC에서 ‘메이지 시대와 근대적 자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일본 소설가 나쓰메 소세키의 ‘산시로’의 문학적 배경이 되는 도쿄를 탐방하며 일본 근대화를 살펴본다.

베트남 소설문학 30년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9월 12일 ACC에서 진행되는 ‘메콩

델타에서 펼쳐지는 뜨거운 욕망의 파노라마’와 ‘잘못된 장소, 잘못된 전쟁’이 그것. 김경희 소설가가 응웬 옥뜨의 ‘끝없는 별관’, 유희석 문학평론가가 한국 소설 황석영의 ‘무기의 그늘’과 반 레의 ‘그대 아직 살아있다’를 모티브로 베트남 전쟁과 인간성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광주의 서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있다.

9월 14일 광주 서구 한림서점에 열리는 ‘섬나라 여자 귀신들이 바라본 세상’을 화두로 한 강좌가 그것. 대만 페미니스트 작가 리양의 소설 ‘눈에 보이는 귀신’을 텍스트로 대만의 정체성 등을 탐색한다. 소설의 번역자인 김태성 선생이 강연자로 나서 작품 세계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문학작품으로 떠나는 아시아 도시 기행’에서는 ‘2023 아시아문화포럼’에 참가하는 아시아 작가들과 시민이 함께하는 서울 문학기행도 마련됐다. 9월 18일 김남일, 하명희 소설가의 안내로 서울 북촌과 성북동 일대로 문학기행을 떠난다.

마지막 포럼 강좌는 9월 19일 ACC에서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로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삼규호 전 제주국제대 교수가 20세기 초 북경 사람들의 일상사와 당대 하층민의 삶을 돌아보며, 김하림 조선대 명예교수는 ‘상하이 격변의 시대, 마도 상하이의 운명’을 토대로 근대화의 어두운 영향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극장서 영화 보고 감독과 대화

9월 게스트초청회

광주극장에서 9월을 목전에 두고 영화 상영회 및 다채로운 GV(게스트 초청회)를 연다.

먼저 2일(오후 3시 20분)에는 ‘피아노 프리즘’을 상영하고 오재형 감독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오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데 장애인 등이 불편함 없이 감상할 수 있도록 소리자막을 삽입한 ‘배리어 프리’영화다. 개봉 첫 주를 맞아 오 감독이 고향 광주를 찾아 관객들과 독특한 영화적 세계관을 나눈다는 계획.

이어 5일(오후 7시 20분)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감상한 뒤 김희정 감독과 굿바이GV를 진행한다. 박하선 주연에 아름다운 해외 정경과 감성선이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양영연 평론가가 진행을 맡는다.

9월 ‘지옥판세’도 만날 수 있다. 27회 부산국제영화제 CGK 촬영상, 제48회 서울독립영화제 넥스트링크상 등 다양한 어워드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작품으로, 루키 임오정 감독을 초대해 작품에 담긴 ‘K-지옥’의 전말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오후 4시 40분 진행.

끝으로 19일에는 다큐멘터리 ‘들보인간의 생존신곡’을 감상한 뒤 권하정, 김아현 감독을 만날 수 있다. ‘들보인간’이던 가수 이승윤의 음악에 반해 그의 신곡 무비를 만드는 도전기를 그린 작품으로, 청춘의 힘과 재기발달함이 가득한 작품이다.

이외에도 광주극장에서 8월 말부터 다음 달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지난 23일 개봉한 ‘볼코노프 대위 탈출하다’와 ‘강변의 무코리타’ 두 작품이 상영 중이다. 아울러 오는 30일 해녀들의 삶과 제주어의 맛을 담아낸 ‘물꽃의 전설’도 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극장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가을밤 ‘인문학’의 향연

한재골 아카데미, 9월7일~11월2일 강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초가을, 인문학 강좌가 담양 한재골에서 열린다.

제2회 한재골 아카데미(원장 강성률·사진)가 ‘인문학, 세상과 만나다’를 주제로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2일(매주 목요일 오후 3시)까지 카페 ‘크로엔젤’(담양군 대전면 병풍로 366) 별관 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펼쳐진다.

이번 인문학 아카데미는 ‘소크라테스’, ‘행복’, ‘공자’, ‘노자’, ‘성(性)’, ‘시장경제’ 등을 키워드

로 진행된다.

먼저 첫 강의(9월 7일)는 강성률 원장(광주교대 명예교수)이 ‘소크라테스에 관한 소문과 그 진실’로 문을 연다. 이어 ‘행복, 행복추구권 탐론’(14일, 송오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 속의 한국’(21일, 김경근 제6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10월 5일, 최창규 명지대 교수), ‘공자와 노자의 만남’(12일, 강성률 원장), ‘성과 밥’(19일, 송오



식 교수), ‘내 손으로 내 땅 개발하기’(26일, 이인화 건축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시장 경제’(11월 2일, 이상직 호서대 교수) 등이 이어진다.

손난숙 시인의 시 낭송도 펼쳐진다. 수강인원은 30명이며 수강료는 10만원. 참석자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카페 이용권이 주어지며 8강 모두 참석시 5만원 환불.

강성률 원장은 “가을날 인문학의 광활한 세계에 빠져보는 것도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직항로 개설 카페리어객선 6월 26일 취항

해남군 우수영 ↔ 신안군 장산 축강 30분대
신의 동리 50분대

사통팔달 해상교통의 관문 → 해남군 우수영항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대교 → 3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서영암 IC

드림아일랜드 Dream Island

(유)신진해운 061)244-0522